

스님과 재가불자 10명 중 5명이 조계종의 선거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94년 종단개혁 이후 제시됐던 '종단개혁 5대 실천이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높았다.

이같은 결과는 중앙승가대 <승가> 편집실과 김응철 교수(포교사회학)가 최근 공개한 '종단개혁과 사면복권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은 95년, 98년,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비슷한 항목으로 조계종의 출·재가 400~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조사 년도별로 비교 분석하고 있다. 2003년 조사는 3~4월 두 달간 이뤄졌다.

“멸빈자 사면해야” 62% 선거제도 부정적 50%

중앙승가대 ‘승가’ 편집실 3차례 설문

우선 선거제도에 대한 종교들의 ‘긍정적 인식’은 80.9%(95년)→23.3%(98년)→20.2%(2003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연도별 ‘부정적 인식’의 추이는 19.1%→49.3%→47.3%였다.

이는 98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각종 선거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는 최근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종단 선거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중 98년과 2003년 조사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총무원장 선출방법. ‘현행 간접 선거’를 선호하는 비율이 8.7%(98년)에서 15.8%(2003년)로 높아졌고, ‘산중총회 추천으로 원로회의에서 선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61%에서 12%로 상승했다. 또 ‘사부대중이 추천하고 중정이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도 4.1%에서 12.3%로 세 배나 늘었다. ‘모든 스님의 직접 선거’는 48.3%에서 33.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꼽혔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결국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접선거 방식과 중정, 원로회의에서 선임하는 방식 등이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회의원 선거 방식은 ‘교구 소속 스님들의 직접 선거’가 41.8%(2003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98년 조사 때는 48.7%였다. 그러나 교구분사 주지 추천·교구 추천위원회 추천·교구 총회에서 선거 등 간접선출 방식에 대한 지지율도 33%에 달하고, 현행 방식에 대해서는 16.5%만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종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구분사주지 선출방법을 보면 ‘산중총회에서 만장일

단의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003년 조사결과 5대 실천 이념 중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항목은 ‘청정교단 구현’(52.5%)이었으며, 다음으로 ‘정법구현’(41.3%) ‘종단 운영의 민주화’(38.8%) ‘불교의 대 사회 역할 확대’(37%) ‘불교자주화 구현’(36.6%) 순이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은 2차 조사(98년) 때보다는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1차 조사(94년) 때보다는 높아진 것이다.

특히 올해 조사 결과 정법구현과 종단 운영 민주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역할 보다는 종단 내부의 수행풍토 조성 및 승가의 지도력과 자질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과 관련한 올해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6%가 ‘찬성’했으며, ‘멸빈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도 62%로 조사됐다. ‘멸빈 징계 제도 보완 방법’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의 합리적 조정과 남용방지’(42.8%)를 가장 많이 꼽아 최근의 멸빈 제도 실효성 논란에 대해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총무원장 선거, 직선·사부대중 추천 의견 늘어

“청정교단 구현·민주적 운영 등 이행 안돼”

치로 선출’하는 방법이 좋다는 견해도 98년과 2003년 43.2%와 40.8%로 가장 많았으나, ‘본사대중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98년 11.2%에서 2003년 21.5%로 높아졌다.

종단개혁목표로 설정된 5대 실천이념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이같은 평가는 전반적으로 종

의 72.6%가 ‘찬성’했으며, ‘멸빈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도 62%로 조사됐다. ‘멸빈 징계 제도 보완 방법’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의 합리적 조정과 남용방지’(42.8%)를 가장 많이 꼽아 최근의 멸빈 제도 실효성 논란에 대해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9일 사실상 전국신도회의 해체를 요구하자 선진구 전국신도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손인식 부회장(왼쪽에서 첫번째)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등 주요 간부들이 중앙신도회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신도회의 사단법인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전국신도회 선진구 회장은 자율적인 신도회 운영과 시민사회 활동을 위해 법인 형태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9일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 임원들로부터 신도회 통합 추진경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중원과 신도법에는 중앙신도회를 조계종 신도회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신도회도 조계종에서 시작된 만큼 하나의 신도회로 존재해야 한다”며 “통합 이후 조계종 전국신도

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사단법인은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장스님은 “지난 2월 통합을 합의한 이후 중앙총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법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중원과 사회법에 모두 적용되는 단체가 돼 탈종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배석한 기획실장 현고스님도 “신도회 통합을 위해서는 중원 개정이 불가피

다시 지켜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통합 신도회가 시민사회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법인을 존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선 회장은 “신도회는 사부대중의 일원인 재가불자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법인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며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종단에서는 신도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후원과 스님들이 환희심을 느끼고

총무원 전국신도회 법인해체해야

전신회 자율운영 위해 유지 바람직

한 만큼 법인 체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신도회 역할의 극대화를 위해 부설로 법인을 둘 수는 있다”면서 사실상 법인 해체를 요구했다. 총무부장 성관스님은 “통합 신도회가 법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총무원장 스님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부장 스님들을 이사로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신도회 선진구 회장은 “종단이 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합의는 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인을 유지한다는 통합 당시 약속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총무부장 성관스님, 기획실장 현고스님, 중앙신도회 백정기 회장, 김진관 부회장, 전국신도회 선진구 회장, 손인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대불련 40돌 ... 동문을 찾습니다

그리운 동문찾기·대학생포교 후원캠페인 전개

1963년 창립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는 지난 40년간 한국불교 최대의 인재산실로 수많은 승·재가 동량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본지는 대불련 창립 40주년을 맞아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성기태)와 함께 6월부터 연말까지 특별기획 ‘그리운 대불련 동문찾기 및 대학생포교 후원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공동캠페인은 지난 40여 년간 대불련 활동을 통해 불교를 접하고 사회에 진출해 전국 각 분야에서 중건으로 성장한 동문들을 하나로 모아 당시의 구도열정을 되살리고 교계 최대의 인재은행을 만들어 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총동문회로 연락주세요

밤을 지새우며 구도열정을 불태우고 전국을 누비며 수행장정을 찾았던 대불련 활동 당시의 소중한 법우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법사님, 세월의 간극을 넘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으신 분은 간단한 사연과 연락처를 담아 본지나 대불련 총동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사연 중 채택된 원고는 본지에 소개될 예정이며, 본지와 총동문회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대불련 후원회원 됩시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청년불자의 열정과 구도심으로 불교를 보다 깊게 그리고 사회화하는데 한 몫을 하면서 한국불교계에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불교학생회 감소,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인해 대학 불교학생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곳곳에 활동하는 불자학생들을 돕고, 포교기금을 마련하는데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을 육성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명단은 본지에 게재되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종찬)에 대학생 포교기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 - 1구좌(1만원 이상)
정기 후원 - 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불련 어제와 오늘 (기획연재)

1963년 창립 이후 40년간 한국불교의 발전과 함께 했던 대불련의 주요 역사, 전국 주요 대학별 불교학생회 소개 및 출신동문들의 활약상, 대불련과 함께 젊음을 바쳤던 동문과 재학생들의 생생한 사연, 그리운 동문 및 은사 찾기의 애절한 사연들이 기획시리즈로 본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63년 창립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추억의 사진, 활동상황을 회고 하면서 그때의 동문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수행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조명합니다. 또 대불련 동문들의 현주소를 밝혀주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안타까운 사연도 소개합니다. 사연은 대불련 동문회와 본사 사이트에서 공동으로 접수받습니다.

공동주최: 대불련 총동문회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현대불교신문사

현대설법

설법이 살면 범죄가 살고, 범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정진만 있고 법회가 없습니까?

법회는 있는데 설법이 없습니까?

★ 설법준비 염려없습니다 ★

- 반드시 경전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 자유자재로 응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 같은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다
- 누구나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활자 크기
- 1편의 분량은 약 25분 소요
- 1편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섯 가지 이상 수록
- 1편씩 따로 떼어낼 수 있어서 책 한 권을 전부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음

◆ 백중 49일 기도,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명절, 방생, 영가천도, 특별행사, 교도소, 경찰서, 거사림회, 보살회, 각종 법회

붓다차리타 설법집(6권)

다르마 설법집(6권)

칸치푸람 설법집(6권)

아쉬바지트 설법집(6권)

특별설법집(2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담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현대설법연구소 대표 전화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발송중!